

# 기사연 리포트 21호

## "여성과 안전한 삶"

- 권두언) \_ 김상덕 3
- 여성과 안전한 삶: 사건, 반성,  
그리고 성찰 \_ 성신형 5
- 신당역 살인사건과 젠더폭력 \_ 이은재 15
-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제언 \_ 오수경 29
- 기사연 소식 40





## 권 두 언

김 상 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여전히 혐오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전체 비율 중 82%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의 80% 이상이 한 성별에 편중되어있는 현상 너머에는 숫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피해 여성의 고통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6년 전 강남역으로부터 ‘n번방’ 사건에 이어, 이번 신당역 사건까지 반복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후 나 또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이번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또 분노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안전한 삶’이라는 누구나 바라고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과연 여성은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를 향해 외치는 절규입니다.

그때마다 문제 제기와 다양한 해법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현실 바뀌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우리 사회 이면에 (혹은 내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폭력의 문화들,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쉽게 힘으로 통제하려는 강압적 방식, 그리고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저속한 문화 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리왔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는지 돌이켜 봅니다.

이번 호를 기획하면서 한 여성 신학자와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성 신학자로서의 입장을 부탁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젠더 폭력의 문제와 안전에 대해 허구한 날 외쳤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여성’들만 소리쳐야 하는가 하는 묵직한 비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이며, 또 실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합니다. 이런 호는 그동안 안전했고 그래서 침묵했던 ‘우리’의 반성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성신형 교수님의 글은 기독교 윤리학자로서의 반성과 성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탁에도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글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이은재 활동가님이 써주셨습니다. 기독교와 성폭력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사유와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이번 ‘신당역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경 대표님은 ‘여성과 안전한 삶’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핵심적인 논의들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 대표님은 기획 단계부터 몇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논의가 폭력, 피해, 갈등의 부정적 서사를 극복하고, 여성과 모두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것은 성별에 상관없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여성과 안전한 삶: 사건, 반성, 그리고 성찰

성 신 형

승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 1.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올리히 벡은 ‘위험사회’로 (1996),<sup>1)</sup>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 근대’로(2000)<sup>2)</sup> 진단하였다. 이 두 사회 학자는 인간에게 안전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던 근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자도생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 이 사회는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홉스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

1) 올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1996).

2)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 근대』, (서울: 도서출판 강, 2000).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열망하지만,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다. 외적으로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량살상 전쟁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차이와 차별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상의 중심에는 성차별 이슈가 있다. 젠더 이슈는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범위가 넓어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슈는 어떤 심각한 사건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논의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건이 반복되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갈등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젠더 갈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자의 ‘반성문’이다. 반성문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글은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로 인한 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이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철학자의 눈으로 지켜보고 기록하면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에 대해서 주장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독교윤리적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세 가지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서,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통계로 드러난 스톱킹 범죄에서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었고(약 81%), 피해자는 주로 여성(약 80%)이었다.<sup>3)</sup>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53%)은 가까이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

---

3) 이세아, “여자가 당했다. 스톱킹 피해자 80% 여성, 가해자 81% 남성,” 『여성신문』, (2022.10.1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28>, 2022년 10월 13일 접속.

한 경험이 있으며, 47% 가량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였다.<sup>4)</sup> 이러한 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도움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강제적 통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살인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여성폭력과 연관된 심각한 살인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 중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2021년 3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최근(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2016년 5월에 ‘강남역 살인사건’은 평소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30대 남성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남역 근처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성 6명이 지나간 후에 한 20대 여성에게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다른 남성들에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을 향한 살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2021년 3월에 벌어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은 쿼 서비스 기사로 속여서 문을 열게 한 후에 집에 있던 여동생을 살해하고, 5시간 후에 귀가한 어머니, 그 후 1시간 후에 귀가한 당사자까지 차례로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최근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는데,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범인은 함께 입사한 동료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인은 350여 건의 문자 메

---

4) 장미혜 외.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5월.

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거절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범인을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범인으로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잔인한 범죄이다. 하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해진 범죄이고, 다른 둘은 스토킹의 결과로 발생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스토킹 범죄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사건은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분명 이 사건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범죄이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의 폭력이 향하는 방향이 여성이라는 점과 남성에 비해 폭력에 더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 3. 주요 논점

이상의 사건들은 남성에 의해서 여성에게 가해진 살인사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의 논점을 한 마디로 줄이면 ‘여성 혐오 범죄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대체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 범죄가 ‘여성 혐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라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조현병이나 심신 미약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몰아서 남성과 여성을 정치적인 대립지점에 놓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로 당연히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여성혐오 범죄로 몰아서 다수의 남성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요약하자면,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사회적인 대립 구도로 만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적 대립구도로 만들어진 진영논리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범죄를 개인적인 행위로 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폭력과 범죄는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심리적인 기저가 바로 ‘혐오와 배제’이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사회 작동원리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지라르가 제시한 ‘희생양 메커니즘’이나,<sup>5)</sup> 아감벤이 사용한 ‘호모 사케르’의 개념은 이러한 구조를 잘 드러낸다.<sup>6)</sup> 이에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 내면의 심리적 기저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sup>7)</sup>

우선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자는 ‘여성 혐오’라는 용어가 지닌 착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혐오의 대상은 부정하거나 가치 없는 어떤 특정한 것일 때 그 의미와 사회적 효과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집단(민족)이나 사회적 약자(천민계급)들에게는 쉽게 혐오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한 사회는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 구조를 지탱한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나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 여성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곤 한다.

#### 4. 현상에 대한 이해

이에 ‘혐오’, ‘여성 혐오’, 그리고 ‘혐오 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혐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여기에 ‘여성’과 ‘혐오’를 붙이면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하게 된다. 여기에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면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

5) 르네 지라르, 김진석 역,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7)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된 사건들을 ‘여성 혐오 범죄’라는 진단을 거부하면서, ‘나는 그런 범죄를 생각해본 일이 없다. 남자가 되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을 너무 단순하게 사용하여 본질적인 현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 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직장 여성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심지어는 만나지 못할 여성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여성 혐오’는 여성에 대한 단순한 반감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에서 뿌리 깊게 형성된 확고한 편견들을 포함한다.<sup>9)</sup> 한편, ‘혐오 범죄’란 ‘특정한 사회·문화적 인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 즉 ‘개인 피해자에 대한 증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말한다.<sup>10)</sup>

이에 우리는 본 사건을 너무 단순화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미움이나 반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여성 혐오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사건을 너무 단순화하고 개인화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없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단순화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가?’라고 반응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다시 혐오로 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반응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

8) 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1)(2019), 91.

9)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2016), 163-164.

10) 박무늬 외, 92-93. 필자는 미국의 사례도 찾아보았는데, 미국 LA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혐오 범죄가 정의되어 있다. “A hate crime is any criminal act or attempted criminal act directed against a person or persons based on the victim’s actual or perceived race, national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or gender.”

<https://www.lapdonline.org/what-are-hate-crimes/> 2022년 10월 16일 접속.

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만들어 낸 문화적 기저의 여성에 대한 깊은 편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편견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우리는 혐의적인 의미에서 ‘여성 혐오’라는 말이 주는 착시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편견과 그것이 만들어낸 혐오 현상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 5. 기독교 윤리적 성찰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기독교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과연 기독교(특히 개신교)는 오랜 시간에 거쳐 형성된 혐오와 배제의 결과로 빚어진 범죄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의 자리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가해자의 자리에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현상을 너무 단적으로 드러낸다. 2012년 전병욱 목사 사건이나 2016년 이동현 목사 사건은 너무 유명하다. 2021년 2월에 임재우 기자가 강병원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기사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종교인은 547명으로 의사 613명 다음 순위로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이러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전유하는 사적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2차적으로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 환경(지인이나 교회 혹은 교단의 대응)이 피해자에게 재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sup>12)</sup>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나쁜 상황으로 끝나게 된

---

11) 임재우, ‘전문직 성범죄’ 1위는 의사…여성계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274.html?\\_ga=2.222295832.1078080742.1665907884-1402507631.1639003949](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274.html?_ga=2.222295832.1078080742.1665907884-1402507631.1639003949), 2022년 10월 16일 접속.

12) 권최연정,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29(2017), 33-41.

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독교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인류가 형성한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의 형성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여성을 차별하면서, 열등한 존재로 대하며, 심지어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결합되어 더 깊은 혐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와 같은 절대 순종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게 만드는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sup>13)</sup>

이렇게 교회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여성이 안전할 수 없는 교회는 어떤 이도 안전할 수 없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가 그 어떤 대상을 편견으로 대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이 안전한 교회.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안은, 위의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혹은 우리 교회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아.’라는 단순한 논리로 만들어질 수 없다. 내가 속한 (보편) 교회가 쌓아온 편견의 문화에 대항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노력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윤리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용서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는 ‘반성하고 되돌아서는 윤리적 결단’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실천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주님께서서는 ‘(이런 질문을 이

---

13) 백광훈, “목회자의 성적 비행과 목회 윤리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2)(2017), 275-276.

제 그만하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였다.<sup>14)</sup> 나의 이웃이 될 만한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습관은 편견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대상을 정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상과 관계없이 이웃이 되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 6. 나가는 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은 사회·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위험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도 한 번 더 드러나고 말았다. 사건 자체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 현상을 개인적·심리적 문제로 치환하면서 근원적인 대책을 찾기보다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책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영논리에 빠져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서 이 엄청난 희생을 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식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구조적인 악을 대면하면서, 철저한 회개와 함께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을 거부하는 윤리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논리도 악임을 깨닫자. 그 악을 거부하기 위해서 율법교사처럼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되는 법’을 배우자.

---

14) 괄호의 내용은 필자가 문맥적인 의미로 추가한 것임. 누가복음 10장 29절~37절을 보라. 본문의 구조에서 율법교사와 예수의 논쟁을 잘 보면, 유대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혐오와 편견의 문화를 질책하시는 예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최연정.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29(2017). 25-48.
- 누스바움, 마사.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 바우만, 지그문트. 이일수 역. 『액체 근대』. 서울: 도서출판 강, 2000.
- 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1)(2019). 85-111.
- 백광훈. “목회자의 성적 비행과 목회 윤리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2)(2017). 269-297.
- 벡, 울리히.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1996.
- 아감벤, 조르조.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 아렌트, 한나.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서울: 한길사, 2006.
-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2016). 147-186.
- 이세아. “여자라 당했다. 스토킹 피해자 80% 여성, 가해자 81% 남성”. 『여성신문』. 2022.10.11.
- 장미혜 외.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5월.
- 지라르, 르네. 김진석 역.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 <https://www.lapdonline.org/what-are-hate-crimes/>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274.html?\\_ga=2.222295832.1078080742.1665907884-1402507631.1639003949,](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274.html?_ga=2.222295832.1078080742.1665907884-1402507631.1639003949)

# 신당역 살인사건과 젠더폭력

이 은 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

너무 많은 내가 죽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또 한 번 죽었다.

- 신당역 추모공간 포스트잇

## 1. 또 한 명의 여성이 희생당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희생당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 노동자가 2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사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피해자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할 것을 미리 알아내고 화장실 안에서 한 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순찰 온 피해자를 흥기로 찔렀다. 짙막한 단신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2016년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고 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불법촬영 협박과 스토킹,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려왔고, 계속해서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했지만 끝내 (보호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분명) 피해자는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번째 신고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가해자의 계속된 스토킹으로 피해자는 올해 1월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제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두 사건으로 가해자는 9년형을 구형받았고 재판 선고가 있기 전날, 가해자는 신당역에서 일을 하던 직장 동료 피해자를 살해했다.

내가 속한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믿는페미, NCKK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등의 기독교여성들은 신당역 사건을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이하 신당역 사건)으로 명명하고 23일 추모기도회를 진행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기도회를 열어 함께 모여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림 1> 2022년 9월 23일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기독교여성 추모기도회 사진

여성에 대한 폭력,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직장,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 젠더갈등 프레임 안에 간혀 여성 폭력은 없다는 얇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권과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운 여성가족부 장관, 남성의 성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언론 등. 신당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막을 수 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희생을 막지 못했다

는 비통합과 슬픔 속에서 피해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동년배 여성이자 기독교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신당역 사건과 젠더폭력에 대해 두서없이 정리한 글이다.

## 2.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 1) 신당역 사건과 언론

“스토킹 가해자가 보복 범행, 신당역 역무원 살해 오래전부터 계획”<sup>1)</sup>

“스토킹 신고 하루 전날 계획된 보복 살인”<sup>2)</sup>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살해당한 20대 역무원, 가해 남성과 ‘뜻밖의 관계’ 드러났다”<sup>3)</sup>

“머리에 ‘이것’ 쓰고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 충격적이다”<sup>4)</sup>

“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30대 남성, ‘완전범죄’ 위해 이것까지 몸에 착용했다”<sup>5)</sup>

“신당역서 女역무원 살해한 남성 체포...원한관계 있었다”<sup>6)</sup>

신당역 사건 발생 이후 하루에 수백 건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도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언론사들끼리의 보도경쟁이 과열됐고 언론사 유입을 유도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과 보도로 점철됐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복 범행’, ‘보복 살인’이라는 보도가 쏟아질 때 <한겨레>에서는 ‘스토킹 범죄’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는 입장<sup>7)</sup>을 발표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

1) 동아일보, 2022-9-15

2) sbs 뉴스, 2022-9-15

3) 위키트리, 2022-9-15

4) 위키트리, 2022-9-15

5) 인사이드, 2022-9-15

6) 국제뉴스, 2022-9-15

7) “<한겨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아무개씨 범죄를 보도하며 ‘스토킹 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경찰 범죄통계 등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한편 강력범죄 전조가 되는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가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혐오 살인사건, 혹은 그 이전부터 여성/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언론 보도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해왔다. 한겨레의 이번 입장은 이런 반성과 성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와 일부 언론을 제외한 신당역 사건 초기 언론사들의 보복 범죄, 원한 범죄 프레임은 피해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가해자의 관점이다. 가해자의 관점과 가해자 중심으로 표현된 보도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스토킹으로 오래 고통 받던 여성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신당역 사건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생략/축소 보도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해왔다. 한 언론사는 가해자의 대학 동기를 취재해 “(가해자가) 여학생들과 문제가 없었다”, “교우관계가 원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다른 언론사에 의해 2차, 3차로 재생산되었다. 이와 같은 보도는 가해자에게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보복 범죄’ 프레임을 더 확고하게 한다. 가해자의 특정한 면을 재현하고 설명하며 가해자의 서사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희석시키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여성 폭력 범죄 보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의 폭력사건 보도에 있어 뉴스가치의 결정과 보도의 내용이 여성/남성/폭력/사랑 등에 대한 문화적 신화와 스테레오 타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eyers, 1997; Nikunen, 2011.”<sup>8)</sup>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것처럼 보도해 유가족이 직접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문제의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가에 집중하는 육하원칙 보

---

사정이 없는 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표기합니다.” <한겨레, 2022-9-15>

8) 홍지아.(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한국언론정보학보, 83, 189쪽.

도의 관행은 가해자의 행위를 보도한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성적폭력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은 가해자가 어떻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몇 시에 어느 지하철역에서 출발해 어떻게 이동했고, 어디에서 흥기를 보도했는지까지 나왔다.

선정성에만 주력한 언론보도, 가해자의 서사에 주목하는 보도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다. 가해자의 불우한 성장과정, 경제적 어려움, 정신병력과 같은 사회 부적응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가해 남성을 일반 남성과 구분된 괴물로 재현하는 것이다. “가해 남성이 정신적 질병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의 피해자라는 언급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동시에 사건 자체를 정신질환자나 불행한 개인에 의해 벌어진 개인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프레임하며 폭력의 일상성을 축소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sup>9)</sup> 이는 여성 일반을 잠재적 피해자로 상정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공포를 조성하면서 여성을 통제하고 공권력의 책임을 최소화시킨다.

사건이 일어난 뒤 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의 과열된 경쟁과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잊어서는 안 된다.

## 2) 서울교통공사, 일터에서 일어난 사건

신당역 사건은 피해자가 일을 하던 와중에 직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었고 노동자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발생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과연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에 책임이 없었을까.

가해자는 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이미 받

---

9) *ibid.*, 190쪽.

은 상태였고, 전과 2범이었지만 결격사유 없이 교통공사에 입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지만, 음란물 유포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 안에 포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가 되었지만,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회사 내부 인터넷망에 접속해 수시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이를 이용해 9월 초부터 살인이 일어난 당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인터넷망에 기입된 거주지는 피해자가 이사하기 전 주소지였던 터라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소속 ‘책임녀성노동자모임’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지만 삭제 당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영업계획처를 통해 “신당역 사망사고 건 관련, 재발방지대책 아이디어 제출 양식”을 내라고 공지했다. 공지를 본 직원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회사가 보여주기식 장단 맞추기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사 측으로부터) 무시되어왔다. 이번 사건도 2인 1조 근무가 실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의 탄식이 컸다.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안전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2인 1조 근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충원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장했다. 반면에 공사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성 직원들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 노동자를 반쪽 노동자로 만드는 또 다른 성차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16년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철도장비 운전분야 계약직 공채에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모두 탈락시킨 일이 2019년 감사원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전적이 있을 정도로 성차별이 노골적인 회사였다. 이 모든 일이 과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공사가 마련해놓은 추모 공간에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또 논란이 되었다. 성차별과 성폭력, 여성을 배제하는 문화를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 어떻게 여성의 안전을 위협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3) 신당역 사건을 젠더폭력 살인사건으로 명명한 이유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건 초기 한겨레가 발표한 입장에 따라 이 사건을 ‘보복 범죄’가 아닌 ‘스토킹 범죄’로 인식하고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신당역 사건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명명했다. 한편 신당역 사건에서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상당수였고 신당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 안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라는 관점과 여성 노동자가 겪는 폭력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었다. 몇몇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살해사건이라는 명명도 있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추모공간에 찾아왔는데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러 가지 시선과 관점이 있지만, 기독교여성들은 왜 신당역 사건을 젠더폭력 살인사건이라고 명명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내 나름의 생각을 정리했다.

#### ① 혐오범죄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강남역 근처 노래방 건물 안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등장하고 규정했지만, 사건을 접한 많은 여성들은 강남역에 모여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임

을 공론화하고 한국사회에 여성혐오 담론을 촉발시켰다.

혐오범죄라는 용어는 미국사회에서 1980년대 등장했다. 이 용어는 유대인, 흑인,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해 촉발된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sup>10)</sup> (혐오범죄는) “개인 피해자에 대한 증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Pendo, 1994: 159; Chen, 1997: 280)”<sup>11)</sup>로 정의된다. 당시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여자들이 무시해서”라고 스스로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목표로 지정한 것은 피해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지 여성이라는 대상으로 환원-대상화-시켰다는 점도 이 폭력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으로 사건을 명명하며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여성계에서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으로 사건을 명명하며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② 신당역과 젠더폭력

그렇다면 신당역 사건은 어땠을까. 신당역 사건 전반에는 (분명한) 여성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가해자의 스토킹과 불법촬영, 두 번의 신고와 고소에도 구속되지 않고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여성혐오에 기반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또한,) 신당역 사건은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불법촬영, 스토킹이라는 젠더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와 성차별에 기인해 일어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을 일컫는다.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폭력이 성별 체계와 그로 인한 차별적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음 드러내는 개념이다. 불법촬영과 스토킹은 여성 인권과 기본적

---

10) 허민숙.(2017).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79쪽.

11) ibid, 재인용

자유를 침해하는 엄연한 젠더폭력의 한 유형이다.

강남역 사건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할 수 있었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신당역 사건은 우리 일상 속에 괴물이 아닌 평범한 가해자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끝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신당역 사건의 주요한 폭력이었던 스토킹의 경우 경미한 사건으로 여겨지거나, 미디어 속에서 구애행위로 그려지며 그 심각성이 가려지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까지 박탈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음에도 성별 고정관념과 통념 속에 가볍게 여겨진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망언은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9월 16일,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하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내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군에 입대하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를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는 남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 심지어는 낭만적으로 권장되는 정체성으로 포장된다. 이러한 통념에서 스토킹 범죄를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유하려는 심각한 여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스토킹을 실패한 구애행위 정도의 사소한 일로 인식하게 된다.

사회학자 이나영은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시대 남성성의 위기를 연결해 분석하는데, 이는 신당역 사건과 젠더폭력을 연결하는데 유효한 관점을 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여성에 대한 혐오의 표출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젠더폭력은 그 자체로 여성들의 삶에 공포와 긴장을 불어넣어 그로 인한 규율과 통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공포의 확대와 순환은 결과적으로 성별화된 위계구조를 계속해서 재생산

하는 것이다.<sup>12)</sup>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과 협박, 지속적인 스토킹과 살인은 젠더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강간이나 아내폭력 같은 전형적인 여성폭력이 가부장적 역사 속에서 사적인 폭력으로 오래 간주되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폭력’, ‘아내(가정)폭력’으로 명명되고 가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 여론의 힘입어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제정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논란이 되었고 그마저도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sup>13)</sup> 실제로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계속해서 스토킹을 지속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sup>14)</sup> 정리하자면 신당역 사건을 젠더폭력으로 명명한 이유는 여성 일상,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차별과 편견, 그로 인한 폭력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젠더폭력을 마주해야지만 젠더폭력을 근절하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 3. 젠더폭력과 여성혐오, 여성들의 삶과 일상에서의 안전

7월 15일에는 인하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강간당하고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성에게는 학교마저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와 단독 보도 경쟁을 일삼아 지탄받았다. 책임의 주체인 인하대 본부 측은 학생들의 추모공간을 철거했다. 또한 CCTV를 증설, 야간 통행금지를 대책으로 내놨다. 그곳에서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하대 사건은) 안전의 문제지,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12) 이나영, 허민숙.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26, no.4 (2014)

13) 2021년 10월 21일 시행

14) 법무부는 신당역 사건 이후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역, 인하대, 신당역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젠더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이 일상을 사는, 노동하고 쉬고 여가생활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함은 언제쯤 도래할까. 여성들의 삶과 일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젠더폭력 사건을 우연적, 개별적, 일회적 일탈로 정의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어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정책의 방향은 여성을 남성 보호의 대상, 가족 안의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젠더폭력을 정책적으로 방관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여성들의 삶과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을 마련해야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젠더폭력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일이 된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일터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 그 운동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지금 한국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하다.

#### 4. 끝으로, 그녀를 기억하며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가해자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고 두 번의 고소를 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서도 엄벌을 탄원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곳곳이 일상을 유지하며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였다. 피해자는 선고 전 마지막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

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본인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버튼을 눌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폭력에 맞서 끝내 생명을 잃은 여성,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리라 믿는다. 우리는 젠더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폭력에 맞선 그녀를 기억한다. 마지막으로 추모기도회에서 함께 읽은 여성시편 13편을 소개한다.

### [여성시편 13편]

1.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당한 폭력을 외면하시렵니까? 여기 불법촬영과 스토킹,  
직장 내 성폭력에 맞서다 끝내 죽음 당한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2. 언제까지 딸들이  
불법촬영과 협박으로 일상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자매들이  
스토킹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스러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3.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과 무감각, 무저항이란 잠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두 눈에 불을 밝히시어  
현실을 똑바로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4. 젠더폭력에 시달리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이들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혐오가 아니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힘없이 비틀거릴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젠더폭력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그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남미, 조상현.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 맥락성에 관한 담론」 한국치안행정논집 17, no.3, 2020.
-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한국여성연구소, 2018.
- 이나영, 허민숙.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26, no.4, 2014.
-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2017.
- 홍지아,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한국언론정보학보, 83, 2017.

##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제언

오 수 경

청어람ARMC 대표

2022년 9월 14일 서울시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을 돌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살해당했다(이하 ‘신당역 사건’). 그를 살해한 30대 남성 전주환은 A씨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그는 3년 동안 A씨에게 350여 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만남을 강요했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전주환을 고소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전주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전주환에게 9년을 구형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심 선고 하루 앞둔 날이었다.

### 1. 신당역 사건,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

원고 청탁을 받고 단지 사실 관계만 건조하게 담은 첫 문단을 쓰기까지

꽤 오래 노트북 앞을 서성여야 했다. 여성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원하는 시민이자 여성으로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건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꽤 컸다.

이 사건에 유난히 마음이 부대꼈던 이유는 10여 년 전 사건 때문이다. 지인 B는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 H와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는 자신에게 점점 집착하는 H가 무서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H의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H는 B를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B를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이 원하는 대답(헤어지지 않겠다)을 할 때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로 인해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B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와 몇몇 지인은 B의 요청으로 H를 설득하기 위해 몇 차례 대면을 했지만 H는 단호했고, 자신을 설득하는 우리에게 공격성을 보였다.

그때 B와 그를 돕는 우리가 절망했던 이유는 아무리 설득하고 경고해도 변하지 않는 H의 집요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B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권력은 결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순간 우리는 깊이 절망했다. B가 납치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B는 H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대답은 무엇이였을까? “다음부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진을 찍으세요.” 그 말에 얼마나 놀랐던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B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납치되어, 긴박한 상황에서도 ‘인증샷’을 남겨야 하는 것이었다. B가 집 앞에서 잠복하던 H에게 가방을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H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귀는 사이인데 싸우던 중이었다”는 H의 말을 믿고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라며 돌려보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집요한 H보다 더 질긴 B의 설득과 주변의 도움으로 얼마 후 해결되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우리에게서 아픈 교훈을 남겼다. 공권력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 글을 읽는 어떤 이는 “법이 그런데 어찌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 법, 그 법을 만든 사회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죽는다. 죽어도 너무 많이 죽는 게 문제다.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추모 공간이 마련된 신당역으로 향하는 걸음이 무거웠다. 신당역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남긴 추모와 슬픔과 분노가 섞인 포스트잇이 가득했다. 포스트잇은 어지럽게 붙어있었지만, 단순한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 왜 막지 못했나?

사고를 당한 A씨는 그 집요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전주환이 합당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에 호소했다. 그러나 법은 그를 보호하기에 부족했다. 법원은 전주환의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했고, 이런 조치는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다. A씨의 직장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미 직위 해제된 전주환이 A씨의 근무 일정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 관리 체계는 허술했고, A씨 혼자 순찰을 돌도록 한 근무 방식도 문제였다. 결국 A씨는 자신이 끝까지 믿었던 법으로부터, 안전하리라 믿었던 근무지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슬기롭게 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건은 더 문제적이다. 돌이켜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가 동일 전과가 있는 전주환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이 전주환을 구속 수사했더라면, 그날 순찰 근무를 2인 1조로 구성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 A씨를 추모하고자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일부 맞다. 이 사건은 2016년에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하 ‘강남역 사건’)과는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강남역 사건의 경우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모르는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으로 명명되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신당역 사건은 면식범에 의한 스토킹 범죄라는 점에서 강남역 사건과는 다르다. 그 점에서는 신당역 사건에 관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는 김현숙 장관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으나 신당역 사건을 단지 여성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로만 보면 우리는 많은 맥락을 잃게 (된다) 면에서 위의 질문과 답변은 ‘우문오답’이다. 신당역 사건은 보다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성 혐오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정당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이란, 생물학적 성별이나 젠더 정체성, 불평등한 젠더 권력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 그 중 여성 대상 폭력은 전통적 젠더 기반 폭력 중 하나로,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폭력 등이 새로운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으로 등장해 심화하고 있다<sup>1)</sup>.

김현숙 장관의 ‘오답’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2022년 7월 15일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하 ‘인하대 사건’)이 발생하자, 김현숙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0%가 남성”이라는 사건의 쟁점을 흐리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정했다. 김현숙 장관은 왜 한사코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얼굴을 지우려 할까? 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함에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젠더갈등’의 영역으로 내몰고 문제를 감추려고 할까? 김현숙 장관의 이런 인식은 여성 혐오에 관한 무지의 결과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무지를 바탕으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소홀히 여겨왔는지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장관, 그것도 해당 사건에 대처해야 하는 부처의 수장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1) 한국일보, 젠더 무물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싼 '여성 혐오' 논점 총정리(2022.09.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613400004372?did=DA>

물론 김현숙 장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1년 11월 19일 자신을 스토킹하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점점 빈번해지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요구를 “페미니즘 선동”으로 규정하며 “남성을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다. 바로 이런 인식이 전형적인 여성 혐오이며 젠더 기반 폭력은 이런 인식을 자양분 삼아 날로 늘어나고 있다.

## 2. 젠더 기반 폭력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젠더 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사회적 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연구들을 참고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젠더 기반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발생한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운동가이자 저술가, 파이어스톤은 가부장제를 단순한 사회 체제를 넘어 “남성 권력과 여성 예속을 유지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남성이 만들어낸 구조와 제도들의 체계”로 설명했다. 이 체계에는 “법, 종교, 가족과 같은 제도적 구조와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영속시키려는 이데올로기가 모두 포함”된다. 한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사회는 그만큼 젠더 불평등한 양상이 재생산되기 쉬운 구조라는 걸 의미한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는 이런 젠더 불평등 양상에 관해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동일한 조건의 경우, 혜택이나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의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상황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교육 및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격차는 결국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가부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2)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 여성에게 부여된 ‘여성다움’을 강조하거나 과도한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것, 즉 특정한 성에 속한다는 이유로 강요되는 억압과 착취도 젠더 불평등의 양

상이다. 3) 똑같은 일이라도 누가 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도 젠더 불평등이다.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는 당연한 일로, 남성에게는 특별한 기여로 여기는 문화나, 남성의 관계는 ‘의리’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의 관계는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 구도로 한정 짓는 문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16)</sup>.

둘째, 이런 사회 구조는 ‘남성사회’를 더 공고히 하게 하고, 여성에 관한 왜곡되고 폭력적인 인식을 학습-수행하게 한다. 남성사회의 주요 특징은 1)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비인격적 존재, 즉 ‘물화’ 하여 인식하게 한다. 성매매 피해 지원 활동가이자 <남자들의 방> 저자 황유나는 이런 남성들의 문화를 ‘방’ 문화로 압축하여 설명한다.

*“남자는 여자라는 타자를 만들고, 이 타자에게 우위를 점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수많은 ‘남자들의 방’은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서로의 남성성을 확인, 승인, 관리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남성성의 본질’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줄 타자인 여자, 그리고 서로를 주체로 승인하는 또 다른 남자들은 ‘남자들의 방’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sup>17)</sup>*

즉, 남성들에 의해 타자화 되고 대상화된 여성은 동료 시민이 아닌, ‘남성 동성사회’를 유지시키는 교환 거래로 쓰인다. 이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유흥산업과 불법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방’들이 성행하게 되고, 이는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디지털 성폭력 산업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십 수 년에 걸쳐 여성을 혐오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성매매와 성범죄의 온상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나 2020년 여성을 ‘노예’로 만들어 학대하고 성폭력을 일삼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N번방’은 이런 남성문화가 그저 일부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남성동성사회가 가진 오랜 문제의 발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16) <젠더와 사회>(동녘, 2014)에서 김현미의 글 ‘젠더와 사회 구조’ 내용 일부를 정리했다.

17) 황유나, <남자들의 방>(오월의 봄, 2021)

2) 이런 왜곡된 남성 문화는 남성의 지배욕과 소유욕을 낭만화한다. 내가 신당역 사건에 관한 발언 중 가장 문제적으로 본 것은 민주당 이상훈 서울시 의원의 한 발언이다. 그는 신당역 사건 다음날인 2022년 7월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건의 원인을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한 것이라 해석했다. 즉,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남성들의 폭력적 대응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 것이라 왜곡하기에 알맞은 문제적 발언이다. 이런 인식은 익숙하다. 어릴 때 남자아이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면 어른들은 “OO가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나를 이해시켰고, 남성들의 성적 일탈과 범죄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여겨지며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애정’이나 ‘구애’ 혹은 ‘연애’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젠더 기반 폭력은 이런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구애’활동이 여성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구와 만날 때 발생한다.

3) 이런 ‘남성성’으로 구성된 젠더 질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전쟁의 ‘희생자’이자 근대화의 ‘주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가부장’으로서 여성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더는 우위를 독점하기 힘들어진 남성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여성을 향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남성들은 자신들을 ‘루저’나 ‘인셀’이 아닌 정치적 주체인 ‘이대남’으로 주목하는 주류 담론과 정치권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런 흐름은 공동체적인 해결이 필요한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여성들의 절박한 문제의식을 그저 ‘페미니즘의 선동’이나 ‘젠더 갈등’으로 왜곡하여 인식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셋째, 피해자를 탓하며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문화라는 토양에서 젠더 기반 폭력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자란다. 신당역 사건의 경우 범인이 동일 범죄 경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스토킹을 여전히 가벼운 범죄로 여긴 탓도 있지만 전주환이 ‘장래가 촉망된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전주환의 입장이 아닌, 여성인 A씨의 사정을

더 고려했다면 어땠을까?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명백하고 심각해도 그의 ‘앞길’을 걱정하는 사회적 문화도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는 결격 사유가 된다. 앞서 소개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발언을 더 들여다보자. 그는 전준환에 관해 “31살의 청년이고 서울 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입장에 선 발언을 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 A씨에 관해서는 “피해 여성이 고소해서 남자 인생 망쳐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사건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고, 이렇게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미국 코넬대학교 철학과 교수 케이트 만은 <남성 특권>에서 이렇게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를 “남성 가해자에게 공감(himpathy)”하는 문화가 “여성 피해자 지우기(herasure)”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up>18)</sup>.

넷째, 이런 사회문화적 요건은 결국 합당한 법 집행의 부재와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체제적 문제를 방치한다. 매년 발표되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2만 4332명 중 남성이 약 12%, 여성이 약 88%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전체 범죄 가해자의 80%를 넘고, 강력범죄 가해자로는 96%를 기록했다. 강력범죄 중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크다. 남녀를 포함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의 82%, 여성 피해자의 95%가 성범죄의 피해자였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강간 98.6%, 유사강간 97.3%, 강제추행 95.8%가 남성 가해자였다. 특히,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당역 사건의 원인이 된 ‘스토킹’ 관련 통계는 어떨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검거된 818명 가운데 남성은 82%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이보라 국회 보좌관이 <한겨레 21>에 기

---

18) 케이트 만, <남성 특권-여성혐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오월의봄, 2021)

고한 바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1999년 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부터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기록될 정도로 오랜 저항을 거쳐 처음 발의된 때부터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야 제정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해왔다<sup>19)</sup>. 누군가 죽거나, ‘N번방’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드러난 뒤에서야 뒤늦게 움직였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젠더 데이터 공백’ 때문이기도 하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대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절실한데 아직 ‘스토킹피해자법’이 제정되지 않아 스토킹 범죄의 실태 조사, 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기관의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이런 젠더 데이터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13년 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살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니 시민사회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젠더 데이터 공백은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직종별·직급별로 제출받던 성별 임금 현황 정보를 2023년부터는 전체 남녀 평균만 제출받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젠더 기반 폭력의 근간이 되는 젠더 불평등을 가늠할 통계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젠더 데이터 공백은 사소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의 저자이자 영국의 저널리스트 케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여자들은 재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며 “젠더 때문에, 그리고 젠더가 여성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 때문에 죽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젠더 데이터 공백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과 젠더 차별을 계속 당연시하고 있다는”걸 정직하게 보여준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젠더 기반 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19) 이보라, ‘스토킹처벌법 이후로도 4명이 희생된 이유’, <한겨레21> 1434호.

그렇다면 교회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교회야말로 이런 사회 구조의 압축판이다. 교회는 사회 그 어느 곳보다 가부장 문화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 그 예로 몇몇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으며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통합 교단도 여성을 차별하기는 마찬가지다. 2022년 9월에 시행된 예장통합 107회 총회 총대 1500명 중 여성은 고작 35명(2.3%)이었다. 예장통합은 5년 전 102회 총회에서 모든 노회가 여성 총대 1명 이상을 의무 파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남성사회’는 성서 해석을 독점하여 남성에게 관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거나 “꽃뱀” 혹은 “신천지”로 매도하며 가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인 남성의 미래는 보호되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꽃뱀과 이단으로 몰려 교회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성을 차별한다면 누가 교회에 남겠는가?

### 3.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앞서 기자들과 김현숙 장관의 질의응답을 ‘우문오답’이라고 표현했다. 질문이 틀렸기에 대답도 틀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서도 그렇다. 틀린 질문은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가 ‘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정치’를 통해 소위 ‘이대남’들의 표와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당선된 후 지지율의 급락하자 국면 전환을 위한 방편으로 결국 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밝힌 것은 ‘잘못된 해법’의 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마땅히 직면해야 할 젠더 불평등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인하대 사건과 신당역 사건 등을 무겁게 받아들여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해야 할 관련 부처를 없앤다는 건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일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할수록 여성은 더욱 불안한 일상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불안

한 일상은 결국 여성을 향한 ‘보호주의’로 회귀될 것이며 이는 가부장제를 영속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가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다면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젠더 기반 폭력은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을 혐오하는 오랜 관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젠더’ 문제를 그저 ‘갈등’으로 여겨 회피하기 전에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현행 법 체계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젠더 기반 폭력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젠더 기반 폭력을 피해자 개인의 운명 혹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판을 짜야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자 <공정 이후의 세계> 저자 김정희원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우리가 몸담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젠더 폭력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변혁정의(transformative justice)’를 제안한다. 미국 원주민 공동체와 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발전시킨 정치적 이론이자 실천적 운동인 변혁정의는 공동체의 온전한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젠더 기반 폭력의 기반이 되는 가부장제와 젠더 차별·여성 혐오적 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sup>20)</sup>. 더는 무지에 의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한 걸음이다.

물론 시급하고 중요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신당역에서 사망한 A씨를 보호하지 못했던 법체계를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정부를 막는 일 등 가야 할 길이 이토록 멀고 험하지만, 더는 이런 일로 동료 시민을 잃고 싶지 않다.

---

20) 김정희원, ‘젠더 폭력의 공동체적 해결’, <항해문화> 116호.

## 기사연 소식

### 포럼 안내

“달진실시대-종교와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기사연 포럼이 개최됩니다. 본 포럼에서는 종교가 가짜뉴스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그 대응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11월 10일 (목) 오후 2~5시
- 장소: 낙원상가 청어람홀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나의 도시이야기 - 숲토피아

‘도시-숲토피아’라는 주제로 제2회 나의 도시 이야기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이 직접 찍은 도시 속 자연을 담은 사진을 공모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작품들로 올해 연말 12월에 경북공역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글폼 <https://forms.gle/gNigmorLLZCGuCtS8>

## 공간이제

본 연구원 건물 지하1층 <공간이제>는 기독교 단체 및 지역사회의 모임을 위한 공간,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과 영상회의,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관문의: 02-312-3317





## 기사연리포트 통권 21호

발행일 2022년 10월 20일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02-312-3317

[www.jpico.org](http://www.jpico.org)

[cisjd@jpico.org](mailto:cisjd@jpico.org)

